

#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윤리학 비판:

『최고선과 최고악』을 중심으로\*

김 용 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키케로는 『최고선과 최고악』 1~2권에서 쾌락을 최고선으로 내세우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소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윤리학설이 방법론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키케로는 방법론적으로 변증법을 사용하여 쾌락이라는 개념이 지닌 정의(定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쾌락과 덕의 싸움'이란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에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키케로는 윤리학에 대한 논의가 시민을 계몽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본 논문은 “찬성과 반대의 양 측면”에서 에피쿠로스 윤리학에 대한 키케로의 논의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재구성이 키케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철학적 계몽과 행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적 쾌락, 정적 쾌락,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 변증법, 덕, 최고선, 4주덕, 우정

## I 서론

키케로는 『최고선과 최고악』에서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세 가지 철학 학파 즉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구아카데미학파의 윤리학설을 한편으로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판하고 있다. 키케로는 각 윤리설이 지닌 특성을 “찬성과 반대”라는 양 측면의 입장에서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서 이성과 덕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신봉하고 있는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을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에피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쿠로스학파의 윤리학설을 우선적으로 배척했다. 그가 『최고선과 최고악』 1~2권에서 했던 작업은 쾌락을 최고선으로 내세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비체계성을 드러내고 일이었다.

논리학-물리학-윤리학의 철학체계를 갖춘 헬레니즘철학에 있어서 윤리학은 철학체계의 정점에 위치한다. 헬레니즘철학을 과수원으로 비유한다면 논리학은 울타리로, 물리학은 나무로, 윤리학은 열매로 비유된다(Mansfeld 2007, 15). 당시 철학의 전반적 목적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sup>1)</sup> 또한 행복에 관한 다양한 관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학파가 난립하게 되었고,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소요학파, 구아카데미학파가 주요 학파로 영향을 미쳤다. 이 중에서 헬레니즘 시대를 풍미한 학파는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였다.<sup>2)</sup>

에피쿠로스를 포함하여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작품을 썼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이들이 직접 쓴 작품은 대부분 유실돼서 원문 형태로 남겨진 것은 별로 없다. 우리가 에피쿠로스의 철학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이차 전거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을 들 수 있다. 로마의 시인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 본성론』은 흔히 가장 중요한 이차 자료로 간주되는데, 그는 여기서 사물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 원자의 운동, 신체와 마음의 구조, 감각과 사고의 원인과 본성, 인간 문화의 발전, 자연 현상에 관해 에피쿠로스가 다룬 논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Long 2000, 61).<sup>3)</sup> 키케로는 『최고선과 최고악』, 『투스쿨룸에서의 대화』, 『신의 본성에 관하여』 등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체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디오게네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의 제10권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 및 그의 작품 목록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에피쿠로스가 쓴 세 편의 편지와 후대에 편찬된 『핵심 교설』의 내용을 그대로

1)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전통철학에 있어서 철학의 목적은 진리의 추구에 있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등장한 헬레니즘철학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었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의 계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건설에 따른 그리스 폴리스의 붕괴에 있었다. 조남진(2008, 1~2장) 참조.

2) 키케로는 총 5권으로 구성된 『최고선과 최고악』에서, 1~2권을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3~4권은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설을, 5권은 구아카데미 학파인 안티오쿠스의 윤리학설을 다루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 헬레니즘시대가 열리면서 급격히 그 영향력이 쇠퇴하였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이었다.

3) 그렇지만 이 책에는 윤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없다.

전달해 주고 있다. 제1의 편지는 헤로도투스 앞으로 쓰여진 것이고, 물리학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sup>4)</sup> 제2의 편지는 피토클레스에게 보낸 것이고, 천문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제3의 편지는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것이고, 인간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다(『그리스 철학자 열전』 10: 29).<sup>5)</sup> 『핵심 교설』은 행복한 삶의 지침을 40개의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스토아주의자인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도덕 서한』에서 에피쿠로스의 격언을 권하고 있기도 하다. 플루타르크는 에피쿠로스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는데, 몇 편의 논문에서 에피쿠로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외에 기원 후 200년경에 디오게네스라는 노인이 오늘날 터키 지역 내에 있는 ‘오이노안다’(Oinoanda)라는 장소의 돌 벽에 새긴 비문과, 많은 격언을 담고 있는 『바티칸 명제』(Vaticanae sententiae)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sup>6)</sup>

위에서 열거된 이차적 전거 중에서, 에피쿠로스의 윤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중요한 전거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와 키케로라고 할 수 있다. 디오게네스는 에피쿠로스의 주요 작품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윤리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위의 전거 중 키케로 외에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없다.

본 논문은 『최고선과 최고악』의 1~2권에 나타난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에 대한 키케로의 분석을 “찬성과 반대의 양 측면”이 잘 드러나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키케로의 『최고선과 최고악』은 그의 철학 작품들 중에서 가장 정교한 작품으로, 그래서 또한 이해하기 힘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키케로의 저술 의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I장의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이론에 있어서 서언(preface)의 중요성과 대화편의 배경을 기술하고, 제III장에서는 에피쿠로스철학체계를 설명한다.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제IV장에서부터 제VII장까지 이루어진다. 제IV장에서는 달콤하고 감각적 쾌락인 동적 쾌락과 고통의 부재인 정적 쾌락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카르네아데스와 키케로의 윤리학설 분류법에 근거해 에피쿠로스 윤리학설의 위상

- 
- 4) 여기서의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5세기 때의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5) Diogenes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translated by R. D. Hick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이 책은 『그리스 철학자 열전』(전양범 역, 동서문화사, 2008)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다.  
 6) 전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Mansfeld(2007, 5-13), 앤소니 롱(Long 2000, 59-62), 호센펠더(Hossenfelder 2011, 237-241) 참조.

을 파악한다. 제VI장에서는 4주덕과 우정이 유쾌한 삶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다룬다. VII 장에서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관계를 다룬다. 제8장은 결론으로 최고선으로서의 아타락시아가 지닌 한계점이 지적된다.

## II. 대화편의 서언과 배경

키케로는 대화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브루투스(Brutus)<sup>7)</sup>에게 보내는 헌정사 형식으로 ‘서언’을 쓰고 있다.<sup>8)</sup> 서언은 키케로가 그리스의 뛰어난 철학자들이 이미 다루었던 최고선이라는 주제를 자신이 왜 라틴어로 다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탐구에 대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부류는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는 철학을 용인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만 철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어에 해박하고 라틴어를 경멸하는 사람으로, 라틴어 번역본을 거부하고 그리스 원본을 읽을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부류는 키케로가 자신의 성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은 철학 작품을 저술하기보다는 다른 문학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키케로는 이와 같은 네 부류 비판자들의 관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다. 첫째, 철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키케로는 이미 자신의 작품 『호르텐시우스』에서 철학을 옹호하고 칭송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키케로는 철학하는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철학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철학을 어느 정도껏만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철학을 아예 부정하는 첫 번째 부류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셋째, 키케로는 그리스어로 쓰인 명작보다는 오히려 서툴지만 라틴어로 번역된 작품이 시민들의 지적 계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적 편견에 빠진 그리스 사대주의자를 비난한다. 넷째, 키케로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며, 이 주제

7) Marcus Junius Brutus, c. 85-42 B.C. 로마 공화정의 유명한 정치가로 기원전 44년 카이사르의 암살에 참여했다.

8) 키케로는 하나의 이론은 우선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히는 ‘서언’으로 시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이러한 서언을 사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키케로의 대화편의 대부분은 서언을 갖고 있다.

는 최고의 철학자들이 다루어왔던 주제임을 주장하면서, 최고선에 대한 탐구는 자신의 격에 어울리며 자신이 수행했던 다른 주제에 대한 탐구보다 더욱 가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최고선과 최고악』 1: 1-12).

서언을 통해 키케로는 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과인 윤리학에 관한 이론을 라틴어로 써서 시민들이 읽기 쉽게 함으로써, 철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는 동시에, 그들을 계몽시켜 행복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 『최고선과 최고악』을 쓰는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서언에 이어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설, 구아카데미의 윤리학설 중에서 먼저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 학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이 학설은 자신이 보기에 다른 학설에 비해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최고선과 최고악』 1: 13).

키케로는 『최고선과 최고악』을 기원전 45년에 썼는데, 에피쿠로스 윤리학설을 다루는 1~2권은 기원전 50년 쿠마이에 있는 키케로의 시골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요 대화자는 키케로, 토르콰투스, 트리아리우스 세 사람이다. 대화편의 ‘저자로서의 키케로’는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를 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로서의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주로 비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sup>9)</sup> 토르콰투스는 귀족 출신으로 대화 당시인 기원전 50년에는 통령(consul)에 버금가는 관직인 법무관(practor)의 자리에 있었다. 트리아리우스는 스토아학파에 경도된 청년으로 아주 신중하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키케로와 토르콰투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심판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화의 마무리 되는 2권의 끝부분에서 에피쿠로스주의에 설득되기보다는 더욱 비판적 관점이 생겼다고 말함으로써 ‘덕과 쾌락’의 논쟁에서 키케로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 III. 에피쿠로스의 철학체계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에 논쟁의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논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리학-물리학-윤리학으로 구성된 에피쿠로스의 철학체계가

9) ‘저자로서의 키케로’와 ‘화자로서의 키케로’의 관계는 플라톤 대화편에 있어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과는 달리 키케로는 자신을 대화편에 직접 등장시키는 데 있어서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

지닌 문제점을 각 학문분야별로 간략하게 비판을 가한다(『최고선과 최고악』 1: 17-26).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물리학 분야에서 원자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과 논리학 분야에서는 변증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리학 분야에서 쾌락설에 근거해 인간의 본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각각 비판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학 분야에 관하여.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물리학이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모방하고 있으며, 독창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데모크리투스는 무한수의 원자가 꼭대기, 밑바닥, 중간, 내부 핵심, 외부 가장자리 등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의 허공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원자들의 임의적인 충돌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에피쿠로스는 원자에 '무게'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원자의 이탈운동(swerving)을 새롭게 상정함으로써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는 원자는 무게를 가짐으로써 직선으로 하강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모든 원자가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원자 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물질이 생성될 수 없게 되므로, 원자가 직선에서 이탈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상정해야만 원자 간의 충돌이 생기고 물질이 생성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키케로는 원자의 이탈운동을 에피쿠로스의 '자의적 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한다. 첫째, 에피쿠로스 역시 데모크리투스와 마찬가지로 원자가 최초로 이탈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다. 둘째, 설혹 원자의 이탈운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 모든 원자가 동시에 똑같이 이탈한다면 직선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자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없게 되며, (2)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원자는 이탈하고 어떤 원자는 직선으로 하강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를 두 클래스로 모순되게 나누는 셈이 되며, (3) 이러한 원자들 간의 임의적인 충돌에서 질서가 잡혀 있는 우주가 생성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피쿠로스식으로 이탈운동을 가정하는 것은 또한 자의적인 것이 된다.

키케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데모크리투스나 에피쿠로스가 불가분의 단위로서 원자를 인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기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할이 계속된다는 것을 아는데, 분할이 안 되는 단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하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를 따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체는 불가분의 것으로 구성될 수 없고, 만약 최소한의 양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수학은 붕괴된다고 말하고 있다. 스토아학파 역시 물체를 무한

히 분할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Cambiano 2007, 588). 이처럼 물체의 연속성이 인정될 때 원자설은 부정된다.

둘째, 논리학 분야에 관하여. 키케로는 논리학분야에서 에피쿠로스가 정말로 형편없다고 짚막하게 지적한다. “그는 정의(definition)를 내리지 않았으며, 분할과 분류에 대해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논쟁을 수행하고 결론을 맺는 시스템을 전수하지 않았으며 궤변을 다루는 방법이나 모호성을 벗어나는 방법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실재’(reality)에 대한 판단을 감각(sense)에 맡겼다(『최고선과 최고악』 1: 22).” 한마디로 말하면, 에피쿠로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있어 변증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은 결코 속이지 않는 진리판단의 기준인 것에 비하여 이성은 오류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인식론을 ‘기준론’(Canonic)이라고 새롭게 명명했는데, 그는 대상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감각적 지각(sense perceptions), 선개념(先概念, preconceptions, 흔히 prolepsis로 말해지기도 한다), 쾌·불쾌의 느낌(feeling)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감각적 지각은 에피쿠로스 인식론의 토대이다. 감각적 지각은 “외부 대상의 표면에서 유출되는 한 덩어리의 원자”(eidola)를 우리의 감각기관이 수용할 때 생긴다. 감각적 지각은 우리에게 대상의 정의(definition)를 말해 주지 못한다. 대상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수용된 ‘감각적 인상’(presentation)을 분류하고 그러한 인상에 등급을 매겨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선개념은 우리 안에 이미 저장된 보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감각적 인상을 판단한다. 이처럼 감각적 지각과 선개념은 인식론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느낌(feeling)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되는데, 느낌은 실천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기준론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성은 감각적 지각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판단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에피쿠로스의 인식론에는 이성에 근거한 정의가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셋째, 윤리학 분야에 관하여.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이미 아리스티푸스와 키레네학파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임을 지적한다. 키케로는 토르콰투스의 조상들의 용감한 행위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행위는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덕을 위한 행위라고 설득한다. 키케로는 대중들이 에피쿠로스를 신봉하는 이유도 그가 쾌락보다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화의 상대자인 토르콰투스는 키케로의 물리학과 논리학에 대한 비판에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의 주된 관심은 윤리학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윤리학이라

는 정점을 지향하고 있는 물리학과 논리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피쿠로스는 물리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용어의 의미, 언설의 성격, 추론의 규칙과 모순율은 물리학을 통해서 이해된다. 사물의 본성을 앎으로써 우리는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 ...

더욱이 우리가 만약에 확실한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소위 하늘이 부여한 기준(criterion)에 충실하다면, 우리의 관점은 결코 어떤 사람의 수사학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주의 본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각의 판단을 옹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도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정신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은 그 기원이 감각적 지각에 놓여 있다. 에피쿠로스의 시스템이 가르치고 있듯이, 만약 모든 감각적 지각이 진실이라면, 지식과 이해는 궁극적으로 가능해 진다. ...

그러므로 물리학은 죽음의 공포를 무시하는 용기를 주며, 종교적 공포와 싸울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부여한다. 물리학은 우주의 신비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의 베일을 들어 올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며 또한 욕망의 본성과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제공한다. 끝으로, 내가 보여줬듯이, 물리학은 지식의 기준을 제공하며, 그 결과 판단이 토대를 얻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또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방법도 제공한다(『최고선과 최고악』 1: 63-65).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에피쿠로스는 물리학과 논리학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용어의 의미, 언설의 성격, 추론의 규칙과 모순율은 물리학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인용문과 “물리학은 지식의 기준을 제공하며, ... 또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방법도 제공한다”는 인용문이 잘 보여주듯이,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물리학은 논리학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물리학은 “우주의 신비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의 베일을 들어 올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며 또한 욕망의 본성과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제공”하여, 결국 윤리학에 봉사하게 된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철학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의 철학체계에서 물리학은 윤리학의 중요한 수단 학문으로 존재함으로써 가치 있는 철학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IV. 쾌락의 정의: 정적 쾌락(static pleasure)과 동적 쾌락(kinetic pleasure)

에피쿠로스 철학체계에 대한 키케로의 전반적 비판이 제기되자, 토르콰투스<sup>9)</sup>는 윤리학의 측면에서 에피쿠로스를 옹호하고자 한다. 1권에서 토르콰투스는 질문과 대답으로 연결되는 변증법보다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연속적인 강의, 즉 수사학을 사용하여 에피쿠로스 이론을 개진한다. 에피쿠로스는 이성<sup>10)</sup>에 근거해서 개념과 결론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는 행위, 즉 변증법을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 실천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Hossenfelder 2011, 297). 그렇다고 에피쿠로스가 수사학을 옹호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사학은 이성적 논리에 입각한 ‘법정연설’이나 ‘정치연설’이 아니라, 즉흥적인 ‘식장연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chenkeveld 2007, 217). 그는 대중을 손쉽게 교육하는 데 수사학을 활용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윤리적 가르침의 전파와 보존을 위해서는 그 내용이 간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으로 기본원칙들을 요약하는 것과 실제 대중을 지도하는 경우 전체적인 가르침을 간단히 종합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든지 스스로 찾아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Hossenfelder 2011, 297).

에피쿠로스는 갓 태어난 동물이나 갓난아이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sup>10)</sup> 이들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본성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련된 논증(즉 변증법)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최고선과 최악』 1: 30).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쾌락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고, 고통의 부재가 진정한 쾌락이며 최고의 쾌락”이라는 주장과<sup>11)</sup> “고통의 부

10) 갓난아이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아보자는 학설을 ‘요람설’(cradle argument)이라고 한다.

11) 플라톤은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고통과 쾌락 사이에는 평온이라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고통의 반대는 쾌락이다. 그러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어떤 중간상태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혼의 평온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즉 평온 상태)을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즉 평온 상태)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괴로운 것과 비교하면 평온이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즐거운 것과 비교하면 그 평온이 괴로워 보인다. 이것은 일종의 기만현상이다. 결론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순수한 괴로움으로 우리가 믿는 일은 없어야 한다(『국가』 583c-584c).” *Philebus* 42c-44a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다.

제가 쾌락의 한계를 규정하며, 이 한계를 넘어서서는 쾌락은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질 뿐, 쾌락의 양이 증가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운다(『최고선과 최고악』 1: 38).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에 있어 핵심 개념인 ‘쾌락’이라는 용어를 변증법을 활용해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변증법은 하나의 통일된 기술로서 사물의 본질을 밝히고, 속성을 드러내며, 논의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완벽한 방법(『최고선과 최고악』 2: 18)”이며, 이 변증법은 개념정의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변증법을 무시하고 쾌락이라는 용어를 정의함이 없이 윤리학설을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학설은 체계성을 결여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키케로가 활용하는 변증법은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적 수사학’이다.<sup>12)</sup> 그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변증법에 익숙하지 않은 토루콰투스가 이 대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자신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와 토루콰투스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쾌락 개념이 지닌 문제점을 논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키케로가 말했다. “목마른 사람의 경우 물을 마시는 것은 쾌락이 아닌가?”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는가?” “그것은 갈증이 해소된(having a quenched thirst) 상태의 쾌락과 같은 쾌락인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이다. 해소된 갈증은 정적 쾌락이며, 반면에 갈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쾌락은 동적 쾌락이다.” “그렇다면 너는 왜 똑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사물에 사용하는가(『최고선과 최고악』 2: 9)?”

키케로는 쾌락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에피쿠로스가 진정으로 의미했던 쾌락은 “먹고 마시고 달콤한 소리를 듣는데서 오는 쾌락과 음란한 성적 쾌락”임을 밝히고 이러한 정의에 대한 토루콰투스의 동의를 얻어낸다(『최고선과 최고악』 2: 7).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원래 동적 쾌락의 의미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선을 규정할 때는 고통의 부재, 즉 정적 쾌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의 비논리적이고 비일관된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키케로는 지적한다.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에서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촉발

12) 변증법은 짧은 질문과 이에 대한 짧은 대답으로 구성되는 문답형식을 취하며, 수사학은 질문의 여지없이 긴 주장이나 설명으로 구성되는 연설형식을 취한다. 철학적 수사학이란 짧은 질문과 긴대답으로 연속되어 가는 문답형식이다. 철학자의 수사학은 철학(변증법)과 수사학이 결합된 스타일로 ‘이상적인 웅변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키케로에 있어서 철학과 수사학의 결합에 관해서는 김용민(2008) 참조.

되어 왔다. 동적 쾌락은 정적 쾌락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이라는 설이 정합적인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였으나,<sup>13)</sup> 정합적일지 몰라도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한 모금씩 마셨다면,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쾌락이 점차로 증가할 것이다. 갈증을 해소한 후 우리는 갈증의 부재라는 정적 쾌락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갈증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고 싶었고, 그래서 마셨다면 더 이상 쾌락의 증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에피쿠로스의 대답은 냉커피는 동적 쾌락을 제공하지만 쾌락의 다채로움을 가져올 뿐 쾌락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4)</sup>

에피쿠로스의 관점과 이에 대한 키케로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근한 예로 목이 말라서 스포츠음료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한 모금씩 마시는 스포츠음료는 동적 쾌락을 증진시키며, 계속 마셔서 갈증이 해소될 경우 우리는 정적 쾌락을 느끼게 된다. 이때 느끼는 정적 쾌락은 물로 갈증을 해소했을 때 느끼는 정적 쾌락과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에피쿠로스의 대답은 그 쾌락의 양은 동일하고 단지 쾌락의 다채로움이 다르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허기가 저서 라면으로 배를 채운 경우와 스테이크로 배를 채운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과연 두 경우 모두 정적 쾌락은 동일하고 단지 쾌락의 다채로움만 다르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허기가 해결된 다음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경우 아이스크림은 쾌락의 증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단지 쾌락의 다채로움을 만족시키는 데 기여할 뿐인가? 이와 같은 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보다 스테이크를 먹어서 더

13) 호센펠더는 다음과 같이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을 재구성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몸의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 아래서 우리는 몸의 모든 원기 왕성한 기능들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쾌락’은 이러한 건강한 상태의 느낌과 다르지 않다. ... 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결국 본래적인 가치 기준이요 본래적인 쾌락이 충만한 상태이다. 불쾌감에서 ‘불쾌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넘어감’으로써의 가치 혹은 그런 ‘과정’으로써의 가치는 이에 반해 단지 하나의 파생적인 의미로서의 행복이다. 곧 목적을 위한 매개체로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다(Hossenfelder 2011, 254-5).”

14) 쾌락의 다채로움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선택해서 먹을 때 느낄 수 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든 대체적으로 쾌락의 양은 일정하며 단지 선택에 따라 쾌락의 다채로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물을 마실 때와 스포츠음료를 마실 때의 쾌락의 양이 다르다면, 물이나 스포츠음료의 선택이 단지 쾌락의 다채로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욱 든든한 포만감을 느끼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달콤한 쾌락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상식이 에피쿠로스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에피쿠로스의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에 대한 정의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적 쾌락이 달성된 이후에,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그렇듯이 동적 쾌락이 쾌락의 양을 갖게 된다는 것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의 최고치라는 한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의 쾌락설은 무한한 동적 쾌락의 추구를 허용하는 아리스티푸스의 쾌락설과 동일하게 되며, 정적 쾌락이란 최고선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덧붙여 개념상의 모순이 지적될 수 있다.<sup>15)</sup>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정적 쾌락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적 쾌락은 ‘쾌락의 양’을 가지고 있지만, 정적 쾌락에 도달한 이후의 동적 쾌락은 쾌락의 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지 다채로움만 가지게 된다. 같은 동적 쾌락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게 되는 모순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갈증의 해소라는 정적 쾌락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포츠음료를 마실 때의 동적 쾌락은 쾌락의 양과 쾌락의 다채로움을 동시에 갖고 있음에 비해서, 물을 마실 때의 동적 쾌락은 단지 쾌락의 양만 갖게 된다. 스포츠음료로 갈증이 해소된 경우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라는 쾌락과 다채로움으로 구성되며, 물로 갈증이 해소된 경우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라는 쾌락으로만 구성된다. 동일해야 할 정적 쾌락이 그 구성에 있어 두 가지로 분류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키케로는 정적 쾌락과 동적 쾌락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요람설로 다시 돌아간다.

갓난아이는 최고선과 최고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적 쾌락과 동적 쾌락 중 어떤 것을 사용하겠는가? 만약에 정적 쾌락이라면, 분명히 갓난아이의 자연적 본능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만약에 동적 쾌락이라면, 너 토르콰투스가 주장하듯이, 어떠한 방탕한 쾌락도 경험하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sup>16)</sup> 더욱이, 새로 태어난 아기는 네가 고통의 부재에서 생긴다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쾌락에서 삶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최고선과 최고악』2: 31).

만약에 갓난아이가 정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면 이는 인간본성은 자기보존을 추구한다

15) 이것은 키케로의 지적이 아니라 필자의 지적이다.

16) 토르콰투스는 키케로와의 논쟁가운데, 동적 쾌락이 쾌락의 본래 의미임을 이미 받아들인 바 있다.

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는 바로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동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이는 인간의 본성은 모든 방탕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과 갓난아이의 삶은 고통의 부재라는 데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키케로는 토르콰투스가 동의했듯이, “동적 쾌락”만이 인간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에피쿠로스도 이런 의미로 쾌락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인간의 본성은 동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최고선은 정적 쾌락에서 구한다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결론적으로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은 쾌락에 의해 자극받는다는 에피쿠로스의 인간 본성론을 폐기하고, ‘자기애’에 의해서 자극받는다는 스토아학파나 구아카데미학파의 인간 본성론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

## V. 카르네아데스 윤리학설 분류법과 키케로의 윤리학설 분류법

키케로는 ‘쾌락’의 정의에 근거해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설이 지닌 모순을 밝혀낸 후, 카르네아데스의 윤리학설 분류법과 자신의 분류법에 의거해서 에피쿠로스 윤리학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키케로는 카르네아데스의 윤리학설 분류법을 에피쿠로스학파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최고선과 최고악』 3권(30-31)에서는 카토가 스토아학파를 옹호하기 위해, 5권에서는(16-23)는 피소가 구아카데미학파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분류법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sup>17)</sup> 2권에서 특기할 점은 키케로가 “자신의 관점에서 각 윤리학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르네아데스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궁극적인 요소로 쾌락, 고통의 부재, 자연적 재화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본성적 요소에 근거하지 않는 최고선에 관한 논의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당장의 획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획득을 위해 장기적인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쾌락과 고통의 부재는 직접적 획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미래의 목표로 유예될 수 없다. 자연적 재화(예를 들면 지성과 건강)는 직접적 획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카르네아데스는 학설 분류를 위해 자연적 재화가 직접적 획득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신을 그 추종자로 자처했다. 자연적 재화가

17) 카르네아데스의 분류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김용민(2010) 참조.

장기적 추구의 대상의 될 때, 이것을 추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재를 추구하는 노력’(attempt to get natural goods)이 바로 ‘도덕’이며, 이 도덕이 바로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카르네아데스의 분류를 따르면, 최고선을 단일한 본성적 요소가 연관시키는 윤리학파는 네 종류가 된다. 아리스티푸스는 쾌락을, 히에로니무스는 고통의 부재를, 카르네아데스는 자연적 재화의 획득을, 스토아학파는 덕을 각각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카르네아데스는 세 가지 본성적 요소에 도덕을 결합시킨 세 가지 윤리학파가 있음을 지적한다. 칼리포는 도덕에 쾌락을 결합시켰고, 디오도루스는 도덕에 고통의 부재를, 아카데미학파인 폴레모와 소요학파는 도덕에 자연적 재화를 결합시켰다. 카르네아데스는 타당한 윤리학설을 가려내기 위해 “지혜와 덕의 조력을 받는 이성”이라는 기준을 내세운다.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쾌락이나 고통의 부재에 근거하는(즉 감각에 근거하는) 윤리학설 및 이것과 도덕의 결합을 주장하는 윤리학설은 타당하지 못한 학설로 거부되며, 또한 카르네아데스가 자처한 가설적 입장도 거부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덕을 강조한 스토아 학파와 덕과 자연적 재화의 결합을 강조한 구아카데미학파의 윤리학설이다.<sup>18)</sup> 이처럼 카르네아데스의 분류법을 따르면,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은 처음부터 타당하지 못한 이론으로 분류되어 구체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논쟁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성’을 판단기준으로 내세워 제반 윤리학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그가 말하는 이성이 카르네아데스의 이성과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의 이성은 “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단일 요소에 근거한 최고선이론을 제외시킬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선과 최고악』 2: 39).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제반 윤리학설을 분류하고 평가함으로써 “쾌락과 덕의 싸움” 즉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싸움”을 유도한다. 우선, 쾌락만을 중시하는 아리스티푸스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듯 인간의 중요한 측면, 즉 ‘사고하고 행동 한다’는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최고선으로 보는 히에로니무스의 관점은, 고통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악을 벗어난 상태가 좋은 삶을 위해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자연적 재화의 획득을 주장하는 카르네아데스의 입장은 가설적이어서 제외되지만, 자연적 재화에 덕을

18) 이 두 학설의 경합을 다루는 부분이 『최고선과 최고악』 3~5권이다.

결합시킨 소요학파의 윤리학설은 어느 정도 이론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쾌락과 덕의 결합을 시도하는 윤리학파나 고통의 부재와 덕의 결합을 시도하는 윤리학파는 모두 조화될 수 없는 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성이란 기준을 가지고 타당하지 않은 윤리학설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과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설이다. 에피쿠로스는 ‘교묘하게’ 두 가지 종류의 쾌락(즉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을 결합시키고 있고, “가장 저급한 권위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리스트에 남아 있게 된다. 두 학설 간의 대립은 결국 ‘쾌락과 덕의 싸움’이 된다. 키케로는 스토아학자인 크리스푸스 역시 이러한 싸움을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최고선과 최고악』 2: 39-44).

키케로는 에피쿠로스학파를 비판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학설 분류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분류법은 크리스푸스의 분류법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스토아 학자인 크리스푸스는 덕, 쾌락, 그리고 덕과 쾌락의 결합을 각각 강조하는 세 가지 윤리학을 주요 윤리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윤리학,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덕의 결합을 주장하는 윤리학, 그리고 자연적 재화와 덕의 결합을 주장하는 윤리학은 그 윤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배척한다. 크리스푸스는 주요 윤리학 간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덕과 쾌락의 싸움”으로 환원되는데, 쾌락은 인류애, 사랑, 우정, 정의가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덕만이 최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아카데미 회의 주의에 관하여』 2: 138-140).

키케로가 변증법을 사용하여 쾌락 개념이 지닌 정의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것이 제1라운드였다면, “쾌락과 덕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것이 제2라운드였다고 할 수 있다.

## VI.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4주덕과 우정

토르콰투스스 의학이 그 기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강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덕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쾌락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지혜, 절제, 용기, 정의의 4주덕도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4주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최고선과 최고악』 2: 42-54).

첫째, 지혜는 우리에게 공포와 욕망을 제거하며 쾌락을 향한 확실한 안내자가 된다. 인

간에게는 세 가지의 욕망, 즉 자연적이며 필요한 욕망, 자연적이며 불필요한 욕망, 허황된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 허황된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절제는 선과 악에 대한 이성의 판단을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절제는 보다 큰 쾌락을 위해서는 고통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셋째, 용기는 우리를 죽음과 고통의 공포에 맞서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준다. 절제가 쾌락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면, 용기는 공포와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넷째, 정의는 남에게 결코 해악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정의가 지닌 힘과 본성을 통해서 정신을 안정시킨다.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한 손해는 부정의에서 오는 이득보다 더욱 크다.

에피쿠로스에 있어서 지혜, 절제, 용기, 정의의 네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와 욕망의 원인을 알게 해주며 쾌락을 향한 확실한 안내자”로서의 지혜이다. 하지만 지혜를 포함한 4주덕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개인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4주덕에 대한 설명을 부정한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물의 어미가 새끼를 기르기 위해 헌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쾌락설은 그 타당성이 약화되며(『최고선과 최고악』 2: 109), 동물과 다르게 “자연이 준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쾌락설은 그 기반을 잃게 된다고 키케로는 주장한다. 플라톤의 추종자로서 이성의 힘을 신봉하고 있는 키케로는 4주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혜에 관하여 - 대괄호는 필자의 구분임. 이후 마찬가지로] 자연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놓았다. 이 욕망은 우리가 여가가 있을 때 가장 잘 표출된다. ... 이러한 욕망의 초기 단계로부터 우리는 일반적 진리를, 즉 믿을 만하고 공개되고 일관된 모든 사물을, 사랑하게끔 인도되며, [정의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만적이고,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즉 사기, 위증, 악의, 부정의를 혐오하게끔 인도된다. [용기에 관하여] 우리 자신의 이성은 그 자체 속에 고결하고 고상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을 수행하기보다는 명령을 내리는데 보다 적합하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 ... [절제에 관하여] 네 번째 품성은 질서와 억제의 품성이다. ... 이 품성은 사려 없음을 걱정하고, 무례한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회피하며, 용기가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행하거나 말하려 하지 않는다(『최고선과 최고악』 2: 46-47).

키케로의 4주덕에 대한 정의는 에피쿠로스가 덕을 설명함에 있어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공포, 욕망, 쾌락’과는 무관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각 덕목은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는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고 덕목별의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혜는 진리를 사랑하는 덕목으로, 정의는 부정의를 혐오하는 덕목으로, 용기는 불행을 견딜 수 힘을 지닌 덕목으로, 그리고 절제는 위 세 덕목이 반대의 방향으로 흐르려는 것을 억제하는 덕목으로 정의되고 있다.

키케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 유쾌한 삶을 살지 못한다(『최고선과 최고악』 2: 49)”라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주목하여, 에피쿠로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도덕적인 삶, 다시 말해 올바름과 영예로움이 추구되는 삶이지 쾌락의 삶이 아니었다고 해석한다. 즉 도덕적인 삶이 쾌락을 수반한다는 것이지, 쾌락적인 삶이 도덕성을 수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진정으로 도덕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의 4주덕에 대한 규정은 키케로가 제시한 4주덕에 대한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에피쿠로스의 논리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사물 가운데, 우정보다 풍요롭고 달콤한 것은 없다(『최고선과 최고악』 1: 65)”고 말한다. 그러나 그에 있어 우정은 4주덕이 그런 것처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뿐으로, 우정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인생의 즐거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의 우정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최고선과 최고악』 1: 66-70). 자신 만큼 친구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자신의 쾌락에 봉사해야 하며, 친구를 위해 자신의 쾌락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우정관이 지닌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키케로는 우정은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우정은 사랑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사랑은 이득의 합리적인 계산으로 생성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점, 그리고 우정과 이득은 서로 결합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에피쿠로스학파의 우정관을 부정한다. 키케로는 우정이 지닌 도덕성은 자기 이득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의 우정이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친구보다 오히려 땅이나 건물을 갖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최고선과 최고악』 2: 78-84).

## VII.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육체에서 시작하며 정신적 쾌락은 육체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최고선과 최고악』 1: 55). 그에 따르면, 쾌락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다. 인간이 감각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은 쾌락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쾌락이 아니다.<sup>19)</sup>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말할 때 플라톤의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육체와 정신은 물리적으로 서로 접촉한다.<sup>20)</sup> 즐거운 감각은 육체적 사건이지만, 마음에 쾌락이나 기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적 쾌락은 비록 육체에서 기원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쾌락에 비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규정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순간의 경험에 한정되는데 반하여, 정신은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경험에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일체의 것은 현재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과 관련해서 과거와 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확실히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정한 악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는다면 그 고통은 굉장히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쾌락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그러한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쾌락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적 쾌락이나 고통이지, 같은 기간 동안에 느끼는 육체적 고통이나 쾌락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최고선과 최고악』 1: 55-56).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정신적 쾌락은 육체적 쾌락에 비해 상당히 크며, 행복은 육체적인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아포니아(aponia)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신적인 근심에서 벗

19) 앞 2장의 '기준론'에 관한 설명 참조.

20) 에피쿠로스는 “영혼은 물체인데, 그 부분은 미세하며, 전체 집적물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그것은 열이 섞인 호흡과 가장 비슷하다(『헤로도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63)”고 말한다. 그는 플라톤이나 그 밖의 이원론자와는 반대로, 영혼이 신체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생명체는 신체와 영혼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영혼은 신체에 담겨야 하며, 영혼만으로 혹은 신체만으로 생명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음은 영혼으로부터 육체가 해체되는 것을 가리키며, 결국 영혼의 원자들을 육체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 마침내 그들이 공중에 흩어짐을 의미한다. 앤소니 롱(2000, 112-114), 호센펠더(2011, 345) 참조.

어난 상태인 아타락시아(ataraxia)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된다.<sup>21)</sup> 그는 현자들은 미래의 즐거운 전망과 과거의 즐거운 추억에 기빠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나쁜 기억을 망각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대중에 비해서 아타락시아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원론을 추종하고 있는 키케로는 우선 모든 정신적인 쾌락이 육체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나 연설문을 읽고 쓰는 것, 역사나 지리학을 연구하는 것, 조각이나 회화, 아름다운 경관, 놀이나 사냥에서 느끼는 스틸, 루쿨루스의 시골집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육체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정신적 쾌락을 제공한다(『최고선과 최고악』 2: 107). 이에 덧붙여 키케로는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너희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할하지만 육체는 현재의 순간만을 의식한다는 이유에서 정신적인 쾌락과 고통이 육체적인 쾌락과 고통보다 크다고 주장해 왔다. … 이 주장은 내가 느끼는 만족 이상으로 타인이 내 일에 만족한다는 주장처럼 설득력이 없다. 너는 현명한 사람의 행복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경험한다는 관념과 이러한 쾌락은 육체적 쾌락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는 관념에 근거지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이것은 즉 현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현명한 사람은 종종 불쌍해지게 된다. 진실로 내가 쾌락과 고통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한 너는 현명한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최고선과 최고악』 2: 108).

에피쿠로스가 정신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의 우위에 두고 있다는 입장은 그가 임종 전에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나의 방광과 위장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내가 이룩한 이론과 발견을 회상하는 기쁨으로 상쇄되고 있다(『최고선과 최고악』 2: 96).” 이 편지에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현자 에피쿠로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몸은 병고로 힘들어 하지만 과거의 즐거움을 회상함으로써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과거에 즐거움을 느꼈던 것은 물론 육체적 쾌락도 아니고 육체적 쾌락에서 기원하는 정신적 쾌락도 아닌, 자신이 이룩한 “이론과 발견을 회상하는 기쁨”에서 오는 정신적

21) Aponia는 영어로 freedom from pain, ataraxia는 freedom from mental disturbance로 번역된다.

쾌락임을 지적하고 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정신적 쾌락은 육체적 쾌락에서 기원한다. 만약 에피쿠로스가 과거의 어느 한 때, 아주 맛있게 먹은 음식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있고, 이 추억을 회상함으로써 현재의 병고를 이기고 있다면, 그의 유언은 이론적 일관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그가 회상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쾌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이론과 발견일 뿐이다.

## VIII. 결론

키케로는 『최고선과 최고악』을 로마 시민을 철학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저술하고 있다. 그의 다른 철학 작품도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는 정치활동을 통해서 로마 시민에게 봉사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에게 여가가 생겼을 때는 철학활동을 통해서 로마 시민에게 봉사했다고 말하고 있다(『투스쿨룸에서의 대화』 1: 5). 그는 에피쿠로스 윤리학이 지난 본질적 성격과 문제점을 보다 쟁점화 시키기 위해서, 첫째, 쾌락의 정의에 주목하고, 둘째, “쾌락과 덕의 싸움”이란 관점을 부각시킨다. 이 두 쟁점화를 통하여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의 관계’와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관계’가 핵심적 이슈로 부상한다.

키케로는 ‘동적인 육체적 쾌락’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이 첫째, 최고선으로 ‘정적인 육체적 쾌락’(즉 아포니아)과 ‘정적인 정신적 쾌락’(즉 아타락시아)을 제시하는 것과 둘째, 아포니아보다도 아타락시아를 더욱 중요한 행복의 원천으로 보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한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출발점인 동적인 육체적 쾌락에 충실하게 논리를 전개했다면, 결국 아리스티푸스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키케로는 아타락시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일단 아타락시아를 에피쿠로스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해 보자.<sup>22)</sup> 스토크스(Michael Stokes)는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원천으로 지적인 원천과 도덕적인 원천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적인 원천은 우주를 이해하고 또한 신과 죽음의 공포에서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공포를 이해하는 것이며, 도덕적인 원천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는 타인이

22) 이 가능성에 대해 키케로는 별로 논의를 하지 않는다. 후대 학자들은 흔히 에피쿠로스의 논리체계보다도 아타락시아를 내세우는 그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있다.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 스토크스는 정의 이외의 다른 덕도 아타락시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에피쿠로스가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Stokes 1995, 168). 그렇다면 아타락시아의 주된 원천은 지혜와 정의를 중심으로 한 4주덕이게 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의 원천으로 4주덕, 특히 그 중에서 지혜(혹은 사려분별)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는 덕에 기반을 둔 아파테이아(apatheia)를 중시하는 스토아학파의 입장과 닮아가게 된다.

유쾌한 삶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음주나 잔치, 또는 남색이나 여색, 또는 생선이나 다른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회피의 원인을 살살이 밝혀내며 영혼을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의견을 쫓아내는 진지한 추론(sober reasoning)이다. 이런 추론의 출발점이자 최대의 선은 사려분별(prudence)이다. 그러므로 사려분별은 철학보다도 더욱 가치 있으며, 다른 모든 덕목들의 자연적 원천이다. 이것은 분별 있고 영예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즐겁게 살지 못하면 분별 있고 영예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덕은 자연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즐겁게 사는 것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32).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게 된다 면 아리스티푸스의 주장과 다름없게 된다. 또한 그 논리적 비일관성을 상관없이 아타락시아를 최고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입장은 궁극적으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 스토아학파의 입장과 다름없게 된다. 덕과 쾌락의 싸움에서 에피쿠로스는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에서 기인하는 덕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덕의 편에 서있는 스토아학파와 구아카데미학파는 『최고선과 최고악』 3~5권에서 검토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키케로는 이 대화편을 통해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향한 (로마)시민들의 철학적 여정이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투고일: 2011년 7월 19일

심사일: 2011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김용민. 2008. “키케로에 있어서 수사학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7집 1호, 217-239.
- \_\_\_\_\_. 2009. “키케로와 헬레니즘철학: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관하여』에 나타난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8집 2호, 95-126.
- \_\_\_\_\_. 2010. “『최고선과 최고악』에 나타난 스토아학파의 윤리학과 구아카데미학파의 윤리학.” 『한국정치연구』 19집 3호, 169-192.
- 조남진. 2008. 『헬레니즘 지성사』. 서울: 신서원.
- Algra, Keimpe, Jonathan Barnes, Jaape Mansfeld and Malcolm Schofield, eds. 2007.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mis, Elizabeth. 2007. “Epicurean Epistemology.” In Algra (2007).
- Barnes, Jonathan, Susanne Bobzien, and Mario Mignucci. “Logic.” In Algra (2007).
- Brunschwig, Jacques and David Sedley. 2009. “Hellenistic Philosophy.” In David Sedley, ed. *Greek and Roman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biano, Giuseppe. 2007. “Philosophy, science and medicine.” In Algra (2007).
- Cicero. J. E. King, trans. 1971. *Tusculan Disput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H. Rackham, trans. 1972. *De Natura Deorum or On the Nature of the Gods*.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Charles Brittain, trans. 2006. *Academica or On Academic Scepticism*.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_\_\_\_\_. 2007. *On Moral Ends*. Julia Annas, ed. and Raphael Woolf,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ler, Michael and Malcolm Schofield. 2007. “Epicurean ethics.” In Algra (2007).
- Hossenfelder, Malte 저. 조규홍 역. 2011. 『헬레니즘 철학사』. 서울: 한길사.
- Laertius, Diogenes 저. 전양범 역. 2008. 『그리스철학자열전』. 서울: 동서문화사.
- Long, Anthony A. 저. 이경직 역. 2000. 헬레니즘 철학』. 서울: 서광사.
- \_\_\_\_\_. 2006. *From Epicurus to Epictetus*.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2009. “Roman Philosophy.” David Sedley, ed. *Greek and Roman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cretius. Martin Ferguson Smith, trans. 2001. *On the Nature of Thing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Mansfeld, Jaap. 2007. "Sources." In Algra (2007).

Schenkeveld, Dirk M. and Jonathan Barnes. 2007. "Language." In Algra (2007).

Seneca 저. 김천운 역. 2010. 『세네카 인생론』. 서울: 동서문화사.

Stokes, Michael C. 1995. "Cicero on Epicurean Pleasures." Powell, J. G. F. ed.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

---

## Cicero's Critique on Epicurean Ethics in his *On Moral Ends*

Yong Min Kim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book I and II of his *On Moral Ends*, Cicero introduces Epicurus' ethical claim which supposes pleasure as the highest good on the one hand, and criticizes his claim on the grounds that his ethical discourse is practiced methodologically in wrong way and that his remarks on pleasure are often self-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on the other hand. Cicero employs the method of dialectic in order to point out the definition problem inherent to Epicurus who despises dialectic, and proves that Epicurus is losing in the war between virtue and pleasure because his emphasis on sense and pleasure in understanding human nature is thought to be on weaker ground than the Stoic's emphasis on reason and virtue. Cicero believes that his philosophical investigation on ethics will contribute to the enlightenment of citizens and thereby making them happy. This paper aims at reconstructing Cicero's arguments on Epicurus' Ethics which are performed in either side of pros and cons. If this reconstruction is so successful as to be regarded as a short-cut to understanding Cicero's philosophical intention, each of us will have an effective means to reach philosophical enlightenment and individual happiness.

**Keywords:** kinetic pleasure, static pleasure, physical pleasure, mental pleasure, dialectic, reason, sense, virtue, the highest good, friendship